

* 마을사 *

석당리·石堂里

도고면의 한 마을로 기와집말, 산양골, 원당리로 이루고 있으며, 원당리가 석당리의 으뜸 되는 마을로 마을 사람들은 원당이라고 한다. 마을의 가구수는 74호로 대부분이 농업을 위주로 생활하고 있으며, 축산업에도 일부 종사하고 있다. 특수작물로는 수박과 쪽파를 재배하고 있다.

석당리는 돌이 많이 나서 돌석자를 써 석당리라고 불리는데,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우, 원당리, 목동을 병합하여 석우와 원당의 이름을 따서 석당리하고 하여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석당리 위치도>



⊗ 원당이 마을 (석당리)

원당이 마을은 기와집말, 산양골, 원당리로 이루어졌으며, 원당은 석당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마을 뒷산(덕암산)에 산신제를 지내던 원당이 있었다 하여 원당이라 하였고, 기와집말은 산양골 맞은 편에 있는 마을로 전에 기와집이 있었다 하여 기와집말이라 하며, 산양골은 목골 옆 양지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 하여 산양골이라 하며, 원당은 웃말과 아랫말로 나뉘어 있다.

<조사당시 석당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원당이 마을은 위도 36-44-40, 경도 127-55-50에 위치해 있으며, 신창 휴게소에서 도고로 가는 도로를 따라 200m 가다보면 왼쪽으로 포장된 도로가 하나 있다. 그 도로를 따라 큰산이 돌아 500m정도 되는 곳에서부터 마을이 시작된다. 마을의 입구에서 두갈래 길로 갈라지는데 두 곳 다 원당이에 속한다.

2) 현황

원당이 마을은 큰 자연마을로 인구는 총 217명, 남 123명, 여자 94명으로 남자가 많은 편이며, 호구수는 74호에 이르며, 주민들은 95.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박과 쪽파를 재배하며, 4.6%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원당이 마을	217명	123명	94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원당이 마을	100%	95.4%	4.6%

원당이 마을은 농경지 논 29.6ha, 밭 24.4ha이며, 농기구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

바인, 트랙터, 건조기로 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앰프시설이 구비된 마을회관 1개소가 있고, 농약기구가 비치되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원당이 마을	54ha	29.6ha	24.4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원당이 마을	1개소	1개소	-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박씨 16%, 이씨 19%, 전씨 18%, 김씨 11%로 주된 성씨를 이루고 있으며, 연령은 2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박씨	김씨	이씨	전씨	기타성씨
원당이 마을	74호	12호	8호	14호	13호	27호

- 최고령자

원당이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희봉 할아버지로 81세이시다.

3) 자연경관

석당 소류지, 원당소류지, 도고저수지, 보등 수리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마을이며, 남동쪽으로 화려한 덕암산이 보인다. 마을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집채가 있는 본 마을이며, 경사없이 평평한 길은 산쪽으로 가는 길로 와산리와 통한다. 이 마을은 산 위에 위치한 마을이며, 차를 타기 위해서는 와산리로 넘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4) 마을 변천 과정

돌이 많이 나서 돌석자를 써 석당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우, 원당리, 목동을 병합하여 석우와 원당의 이름을 따서 석당리라 하여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원당이 마을은 웃말과 아랫말로 나뉘는데 웃말은 처음으로 평산 박씨가 터를 잡고 살았으며, 그 이후로 이씨가 들어와 살게 되었다. 평산박씨가 터를 잡은지는서기 지금으로부터 약 570년전으로 서기 1400년대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랫말에는 처음 전씨가 터를 잡았다고 한다.

6) 지 명

- 기와집말 : 산양골 맞은 편에 있는 마을로 전에 기와집이 있었다고 함.
- 목골 : 신유리 도고 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 현재는 수몰된 지역인데 특별한 유래는 없음.
- 산양골 : 목골 옆 양지쪽에 있는 마을
- 씨웃골 : 원당 옆에 있는 마을. 전쟁이 났을 때 쉬어가던 고개라 함.
- 원당이 : 석당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 철장모랭이 : 씨웃골에서 조그만 산모랭이를 돌면 석당리 가든골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옛날에 철장 모랭이었다. 돌모둥이가 철장 같아서 불리게 된 것이며, 지금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음.

·군량들 : 군량미를 저축했었다는 유래가 있는 들로 그밖에 솔모로란 들도 있음.

·주절바위 : 산허리 절에 있는 바위로 크기가 보통 바위보다 몇배나 큼.

·불당골 : 원당이 뒷편이 있는골. 절이 있었음.

·구절바위골 : 원당이 동쪽에 있는 골. 옛절터가 있음.

·솔모로 : 원당이 앞에 들.

·원당이 방죽 : 원당이 동북쪽에 방죽이 있음.

7) 전 설

十 처녀바위에 대한 전설

도고면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넓은 농토에 물을 공급해 주는 큰 저수지가 있다. 석당리와 신유리를 양쪽에 그리고 앞에는 시전리를 끼고 위치해 있으며, 옛날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농민들이 지어 놓은 농작물을 착취해 가기 위해 거대한 저수지를 설치한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농토의 젖줄기의 하나가 되었지만, 신유리쪽인 남쪽은 저수지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 위험 지구는 없지만, 석당리 쪽인 북쪽은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고, 석당리 아이들은 학교에 갈때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위험지구인 독을 따라 계속 가면 가장 위험한 곳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는 이 바위 밑을 보면 마치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무시무시한 느낌을 받는다. 바로 이 바위에서 옛날부터 자살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기 꺼린다. 전해오는 말로는 저수지를 만들기 전에는 바위가 있는 곳에 무덤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그대로 파헤쳐 저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혼이 이 바위에 서려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이 바위를 처녀바위라 하게 된 것이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지금으로부터 30년전만해도 노신제와 성황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노신제는 현재 마을 회관 옆으로 지금은 밭이 되어 버린 자리가 노신제를 지냈던 장소로 그때만 해도 매우 엄격하게 지냈고, 음력 정월 초순에 지내곤 하였다. 성황제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가서 제를 올리는데 지금도 성황나무는 남아 있어 지금도 가끔 개인적으로 제를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성황나무는 마을회관 앞에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十 우국지사 성달영 선생

독립운동가, 자는 경백, 호는 비파헌(琵琶軒) 본관은 창령, 문간공 우계 성훈선생의 12세 손으로 고종 10년 (1873) 6월 15일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에서 탄생하였다. 선생은 천품이 온후강직(溫厚剛直)하고 인애(仁愛)와 절의(節義)를 숭상(崇尚)하는 기품(氣品)을 지니었다.

고종 42년 (1905) 일제의 총검(銃劍)아래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締結)되자 선생은 친제(親弟) 성문영(成文永)과 함께 분연(忿然)히 일어나 망국적조약(亡國的條約)의 무효(無效)와 파기(破棄)를 선언하고 김재원 선생등 우국지사와 협력하여 홍주를 거점(據點)으로 의병을 일으키더니 의병장(義兵將)에 추대(推戴)되어 맹약분투(猛躍奮鬪)하였으며, 이때에 김기우(金箕佑), 박제현(朴濟賢), 박창로(朴昌魯), 박윤식(朴潤植)등 제의병장(諸義兵將)도 모두 동렬(同列)에 참가하였다. 선생은 망국의 비운(悲運)에 임하여 구국운동의 선봉이 되어 의병을 지휘(指揮)하면서 항일투쟁(抗日鬪爭)을 전개(展開)하던 중 1913년에 채기중(蔡基中), 유장렬(柳璋烈)선생 등에 의하여 풍기에서 조직된 비밀결사인 대한광복단(大韓光復團)에 자진입단하여 독립운동을 적극(積極) 확대(擴大)하였다.

1915년에 대한광복단은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로 개칭되었고, 동년 8월 25일에는 대전달성공원에 수백명의 동지(同志)가 회합(會合)하여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위한 새로운 조직과 활동방안(活動方案)을 논의 하였으며, 1916년에는 중국에서 활약하던 노백린(盧伯麟), 김좌진(金佐鎭) 장군 및 김한중(金漢鍾), 박상진(朴商鎭), 채기중(蔡基中), 장두환(張斗煥) 등의 지사들을 맞이하여 다시 대한광복단이라 개칭한 다음 조직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수적 일제를 구축(驅逐)하고 조국광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서고(誓告)하고 혈맹

(血盟)의 결의(決意)를 다짐하였다. 이로부터 선생은 충청도를 활동무대(活動舞台)로 하여 안으로는 독립운동 군자금(募金)을 모금(募金)하고 밖으로는 중국등지의 독립군과 제휴(提携)하면서 외병의 핍박(逼迫)과 빈고(貧苦)에 시달리는 가족을 잇은채 설풍한우(雪風寒雨)에도 불구하고 일본구적(日本仇敵)과 친일흉도(親日兇徒)의 타도(打倒)를 위해 헌신하던중 불행히도 1918년 1월에 외경에게 체포(逮捕)되어 공주 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경성과 대전의 형무소로 이감(移監)되었다. 영어(囹圄)의 몸으로 잔인무도한 온갖 고문과 치욕(恥辱)속에서 뜻(뜻)을 굽히지 않다가 마침내 출감하게 되었으나 외경의 가혹(苛酷)한 감시로 인하여 구국의 용지를 펴보지도 못하고 1932년 11월 3일에 조국광복을 못 본채 아산군 도고면 석당리에서 60세를 일기로 한 많은 형극의 생애(生涯)를 마쳤다. 선생의 활동은 대부분이 비밀리(秘密裡)에 실행되었으므로 현존하는 기록이나 구전은 빙산일각에 불과하여 선생의赫赫(赫赫)한 자취를 다 살피기는 어렵다. 선생의 의병활동은 기미 3.1운동의 모태(母胎)가 되었으며, 그 이후의 항일투쟁(抗日鬪爭)은 조국광복의 기반(基盤)이 되었다. 묘소는 아산군 도고면 석당리에 있다. <대한독립운동사. 독립운동유공자성공달영지묘명>

10) 종교단체

원당이 마을은 서래정사라는 절이 있으며, 신도수는 30명이 되고, 기독교로서는 석당교회가 있고 신도수는 45명이다.

11) 공장현황

원당이 마을에는 공장이 없다.

12) 마을의 특성

도고면 석당리는 석당 소류지, 도고 저수지, 원당 소류지, 보등 수리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마을이며, 남동쪽에 화려한 덕암산이 있고, 특산물로 쪽파와 수박을 많이 재배하고, 성달영 우국지사의 묘가 있으며, 마을의 애경사시 모든일을 술선수범하여 단합하며, 협력이 잘 되는 마을이며, 정이 넘치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